



인협·출협·서련 등 인쇄·출판단체 “책에 대한 카드수수료 내려달라”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희두),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김종영), 한국출판학회(회장 남석순),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사장 임홍조),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종수),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고영은), 출판도시인주기업협의회(회장 김정선), 한국제지공업연합회(회장 이상문),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재복) 등 인쇄·출판 관련 단체는 구립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책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최소 1.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정리 | 인쇄민 기자 heroic127@print.or.kr

출판은 우리가 반만년의 시간을 가진 문화민족인 근거다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인 이유는 직지심경과 팔만대장경, 한글을 가진 인류 최고·최초의 출판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식민지와 분단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선진 경제국가와 민주국가로 도약한 것도 출판에 크게 힘입은 결과이다. 출판은 21세기 지식산업사회의 기반이다. 또한 출판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가 통일로 가는 보루이다. 출판은 문화적·지적 수준을 가능하는 근간일 뿐만 아니라 생존의 핵심적 터전이다. 그럼에도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출판의 가치와 의미를 방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 출판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영향 등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카드사용 확대 정책에 따라 도서 판매 시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높은 카드 수수료의 부담은 출판·서점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책의 생산과 유통, 즉 저자·출판사·인쇄사·서점으로 일관 구성된 출판은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인하여 관계자 모두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왜 출판계만 외면하는가?

사실 도서 판매에 대한 높은 카드 수수료율이 출판·서점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동안 출판·서점계가 정신문화업계 특유의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회사와 정부기관 등에 여러 차례 건의해왔음에도 그 대답은 언제나 실망스러웠다. 업종별로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살펴만 봐도 출판·서점계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골프장, 주유소, 대형 할인점 및 병원 등의 카드 수수료율이 1.5%인 데 비해 서점은 업종별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약 3.0%)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신용사회의 구현과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리고 균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신용카드의 수수료는 우리 출판·서점계에만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출판계의 생사가 달렸다

현재 업종별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약 2.09%이다. 해마다 독서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출판·서점계에 약 3.0%라는 카드 수수료율 적용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부담이다.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액 중 카드 매출액이 80% 이상이고, 그에 따른 제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출판·서점계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지금 우리 출판·서점계는 붕괴 직전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부심과 그 정통성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국회 및 신용카드업계는 출판·서점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인지를 새롭게, 그리고 긴급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하루빨리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서점 및 출판·인쇄업계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출판을 살리고 역사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도서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

- 정부는 국가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인 출판산업의 부흥을 위해 출판·서점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촉구한다.
- 국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부과를 통해 출판과 서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법제화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 신용카드업계는 신용사회 구현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출판·서점 업종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소한 1.5% 이하로 인하해줄 것을 촉구한다. ↻